

국내 카드시장의 현황과 전망

2018.1



여신금융연구소
THE CREDIT FINANCE RESEARCH INSTITUTE

Intro

- 본 보고서는 '18년 카드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여신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집필진

여신금융연구소

박태준 실 장 (02-2011-0750)

윤종문 연구위원 (02-2011-0719)

장명현 연구원 (02-2011-0674)

I. 경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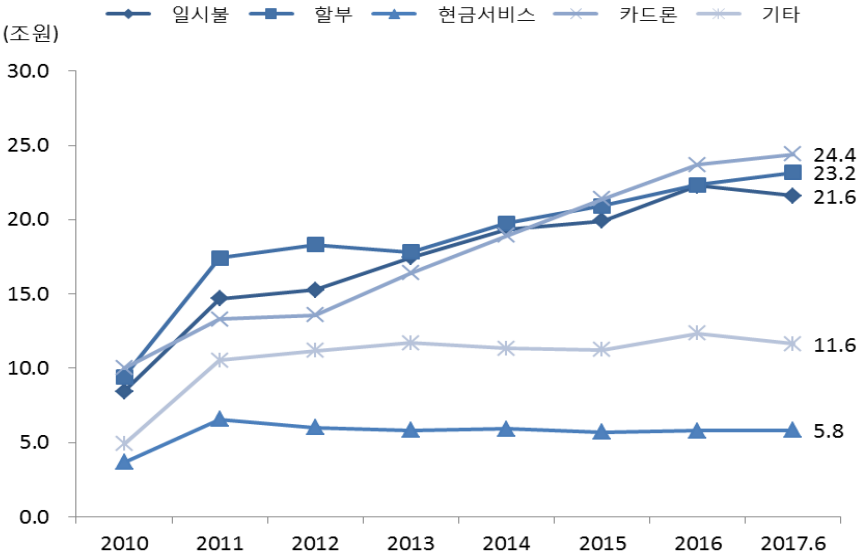
- 1. 영업규모**
- 2. 수익성**
- 3. 자산건전성**
- 4. 자본적정성**

카드자산 성장 대비 할부금융자산의 빠른 증가세

■ 17년 상반기 카드사의 할부금융자산이 급증하는 반면,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부분의 자산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카드자산의 성장세는 약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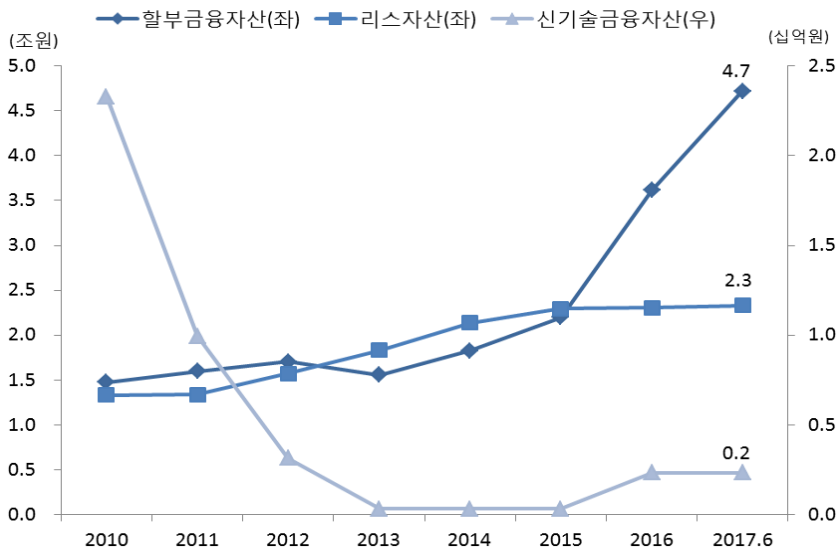
- 전년말 대비 카드자산은 2천억원 증가한 반면 할부금융자산은 1.1조원 증가를 기록
- 이는 카드사의 수익성 하락에 따른 추가수익원 발굴 노력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등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카드자산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할부·리스 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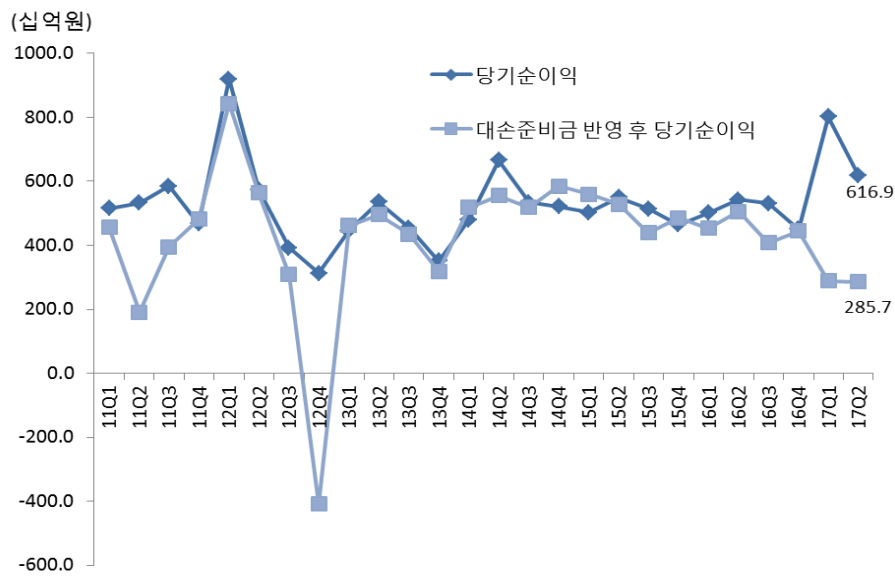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대손준비금 적립 증가로 수익성 하락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대손준비금 증가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고 이로 인해 ROA와 ROE 모두 감소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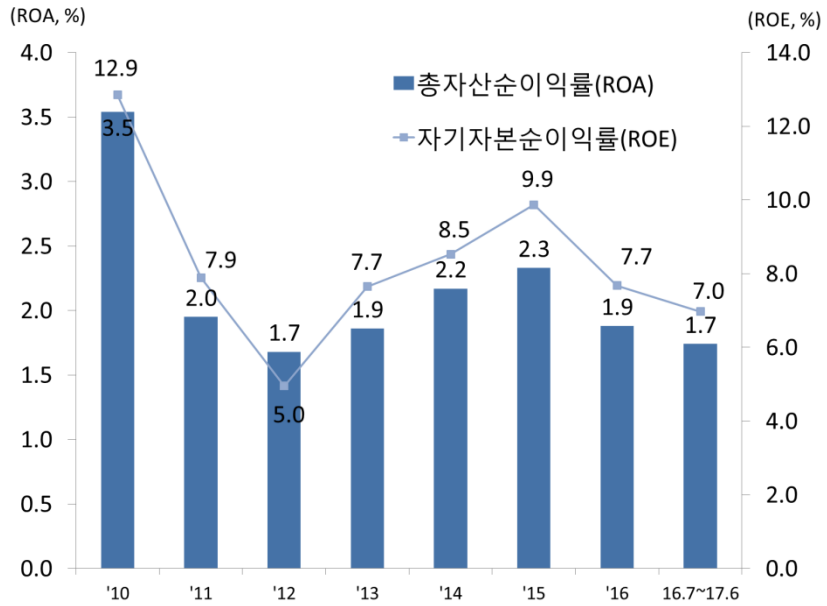
- 17년 상반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고 ROA 및 ROE는 각각 전년대비 0.2%p와 0.7%p씩 감소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ROA 및 ROE 추이(평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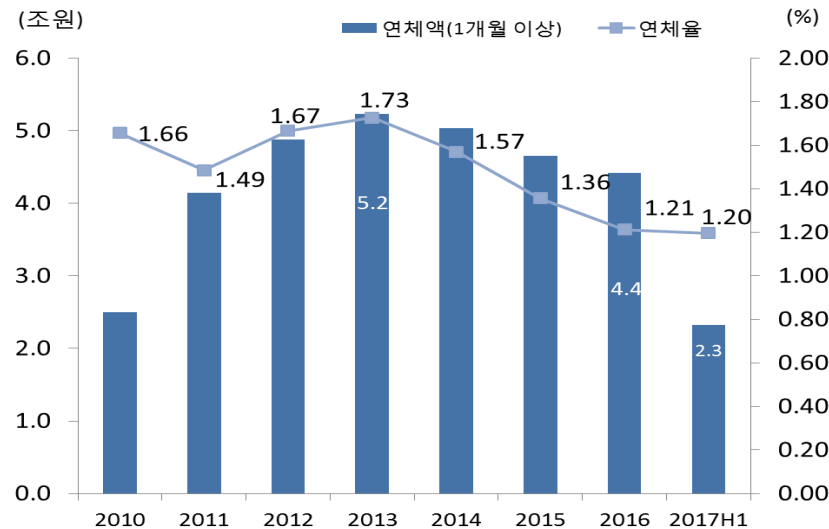
주 : ROA와 ROE는 개별 카드사의 ROA와 ROE를 단순평균으로 계산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연체율 하락 추세는 둔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적정수준 유지

■ 17년 금리인상 전망으로 연체율 하락 추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요적립액을 충족하면서 적정비율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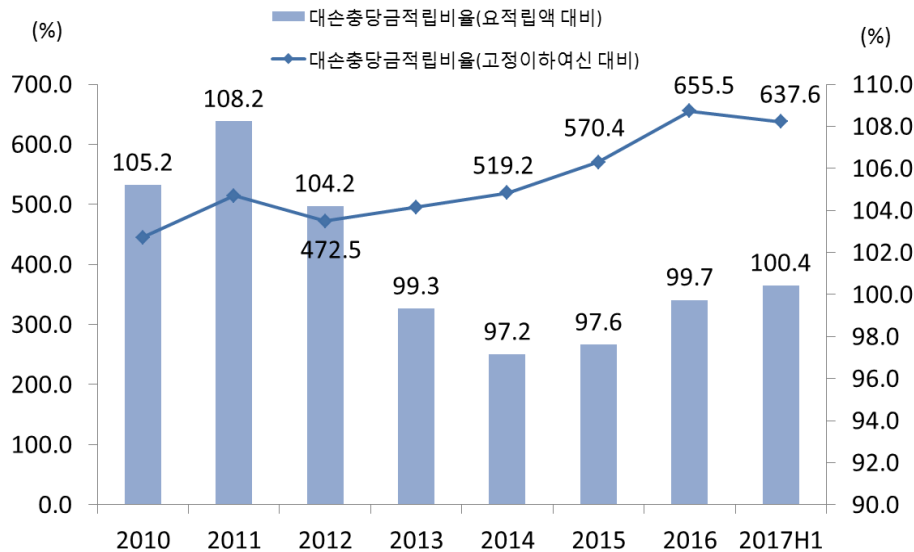
- 17년 상반기 연체율(1개월 이상)은 1.20%로 13년도(1.73%) 대비 0.5% 감소했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요적립액 대비 100.4%와 고정이하여신 대비 637.6%를 기록
- 금리인상에 대응해 적정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요적립액 대비)을 유지

연체규모 및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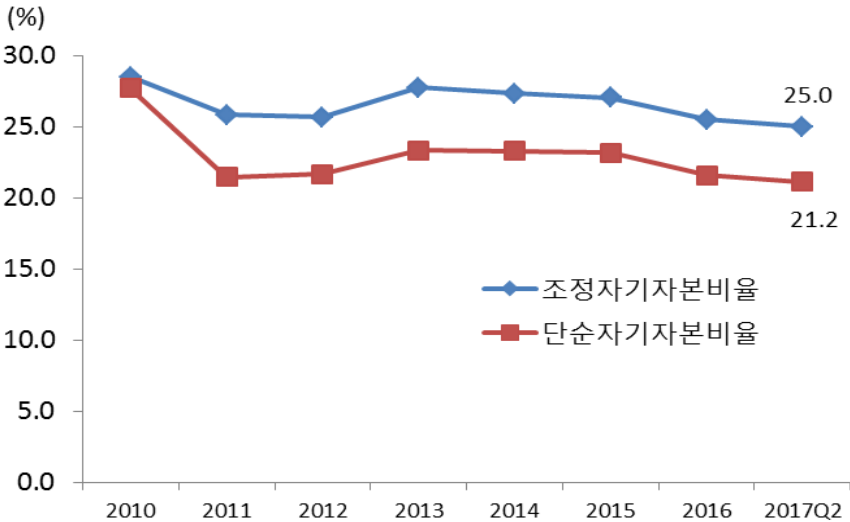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적정 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 유지

■ 카드 및 할부금융자산의 증가로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정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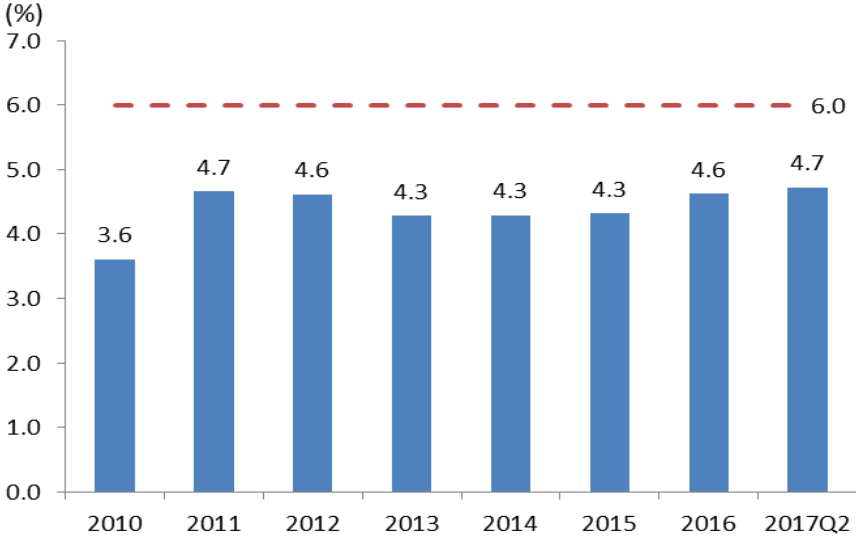
- 17년 2분기말 조정 및 단순자기자본비율은 각각 25%와 21.2%를 기록하였고, 레버리지비율 (총자산/총자본)은 4.7배로 법정배수(6.0)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차후 신용판매 및 카드대출 확대 시 적극적 영업활동이 가능한 레버리지 수준으로 판단

자기자본비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레버리지비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I. 영업환경

1. 거시경제환경
2. 카드사 영업환경
3.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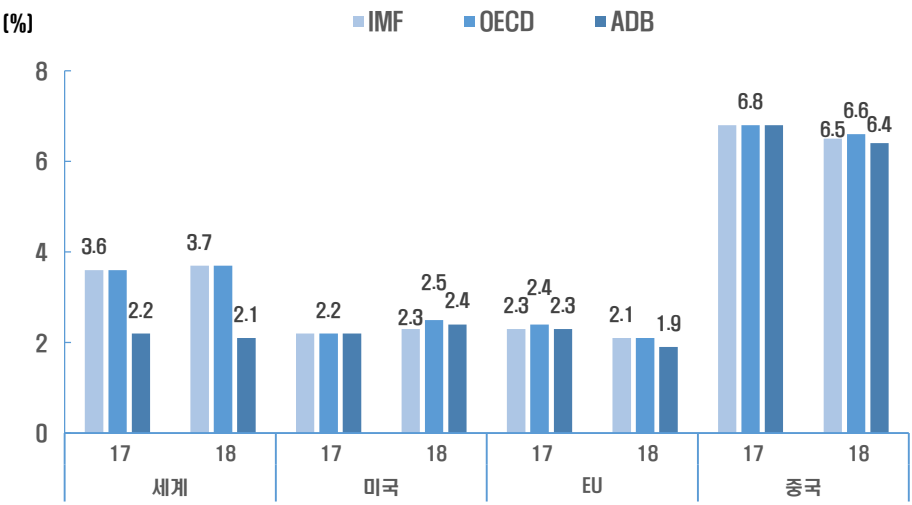
세계경제는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

■ 18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내수회복 및 중국 등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MF는 주요국의 18년 경제성장률을 미국 2.3%, EU 2.1%, 중국 6.5%로 예상
- 미국의 금리인상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향, EU의 브렉시트 협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위험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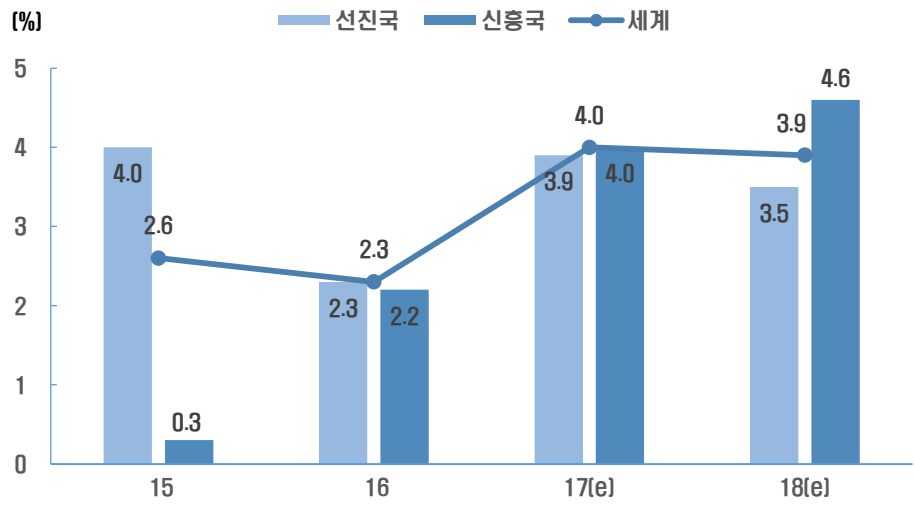
■ 18년 세계교역량 역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와 신흥국의 수입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17년과 비슷한 3.9% 내외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주 : ADB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주요선진국 기준
자료 : 각 기관 전망보고서

세계교역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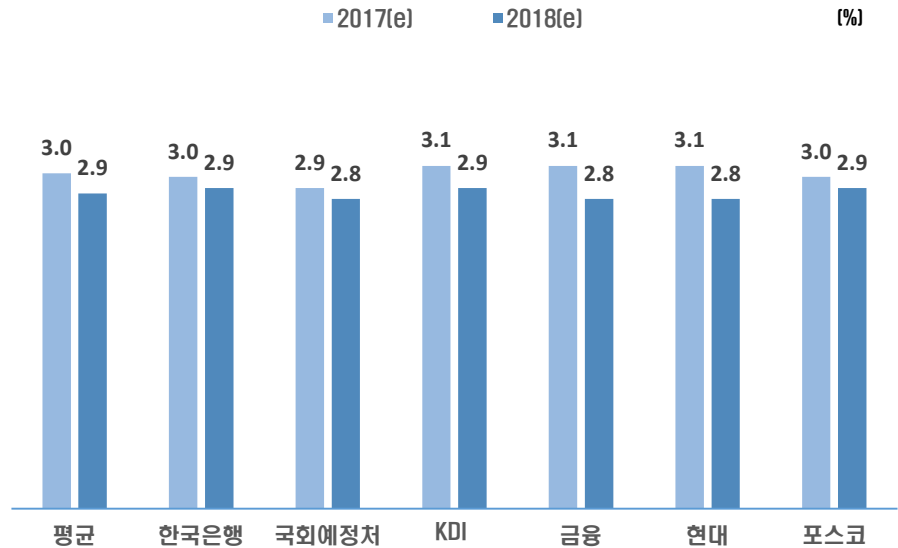
자료 : IMF

18년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2.6%로 전망

■ 18년 국내경제는 전년(3.0% 예상) 대비 0.1%p 감소한 2.9% 성장이 예상

- 민간소비 : 고용개선, 정부의 소비 및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17년 대비 0.3%p 증가 전망
- 설비투자 : 성장세가 지속되겠으나 17년의 높은 성장세는 일정수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 :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SOC예산 감축,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상당 수준 하락 전망
- 경상수지 : 수출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나 소비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폭은 감소 예상
- 국고채 수익률 :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기조로 상승 예상

2018년 국내 경제 전망(기관별)



자료 : 각 기관 전망보고서

2018년 국내 경제 전망(분야별)

분야	2017(e)	2018(e)
민간소비	2.4%	2.6%
설비투자	13.3%	3.4%
건설투자	7.0%	0.0%
경상수지	768억달러	741억달러
국고채 수익률	1.8%	2.2%
물가 상승률	2.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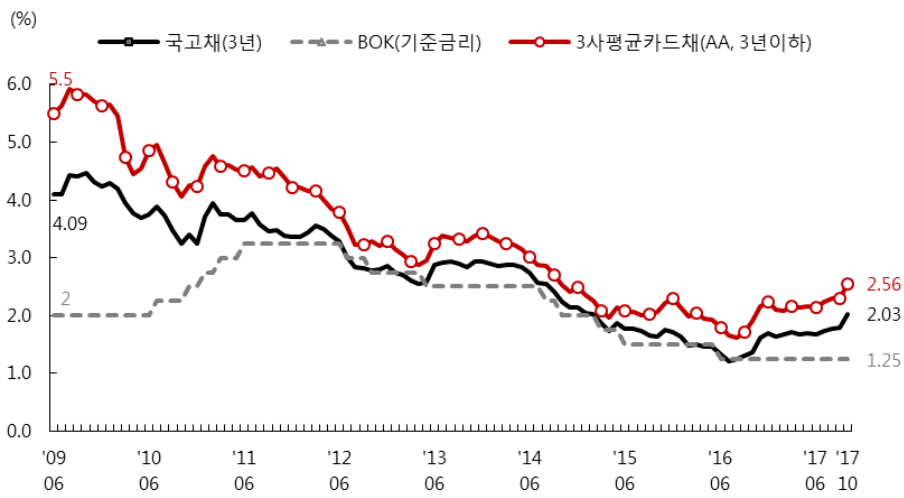
주 : 각 연구기관 전망치 평균
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카드채 금리 상승 전망

■ 2012년 이후 카드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미국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카드채 금리 상승기로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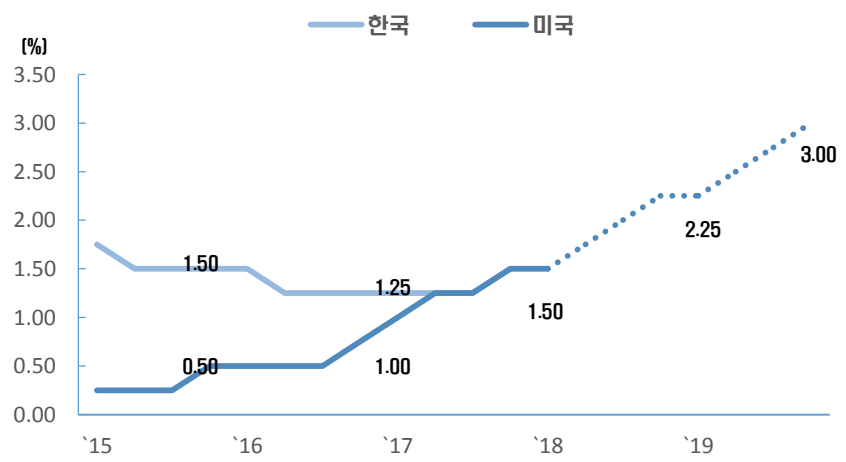
- 향후 미국 기준금리가 0.25%씩 3차례에 걸쳐 인상된다면 18년말 기준금리는 2.2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기준금리도 상승 가능성 높음
- 2018년에는 미국 및 한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등 대내외 여건 고려시 카드채 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카드채 및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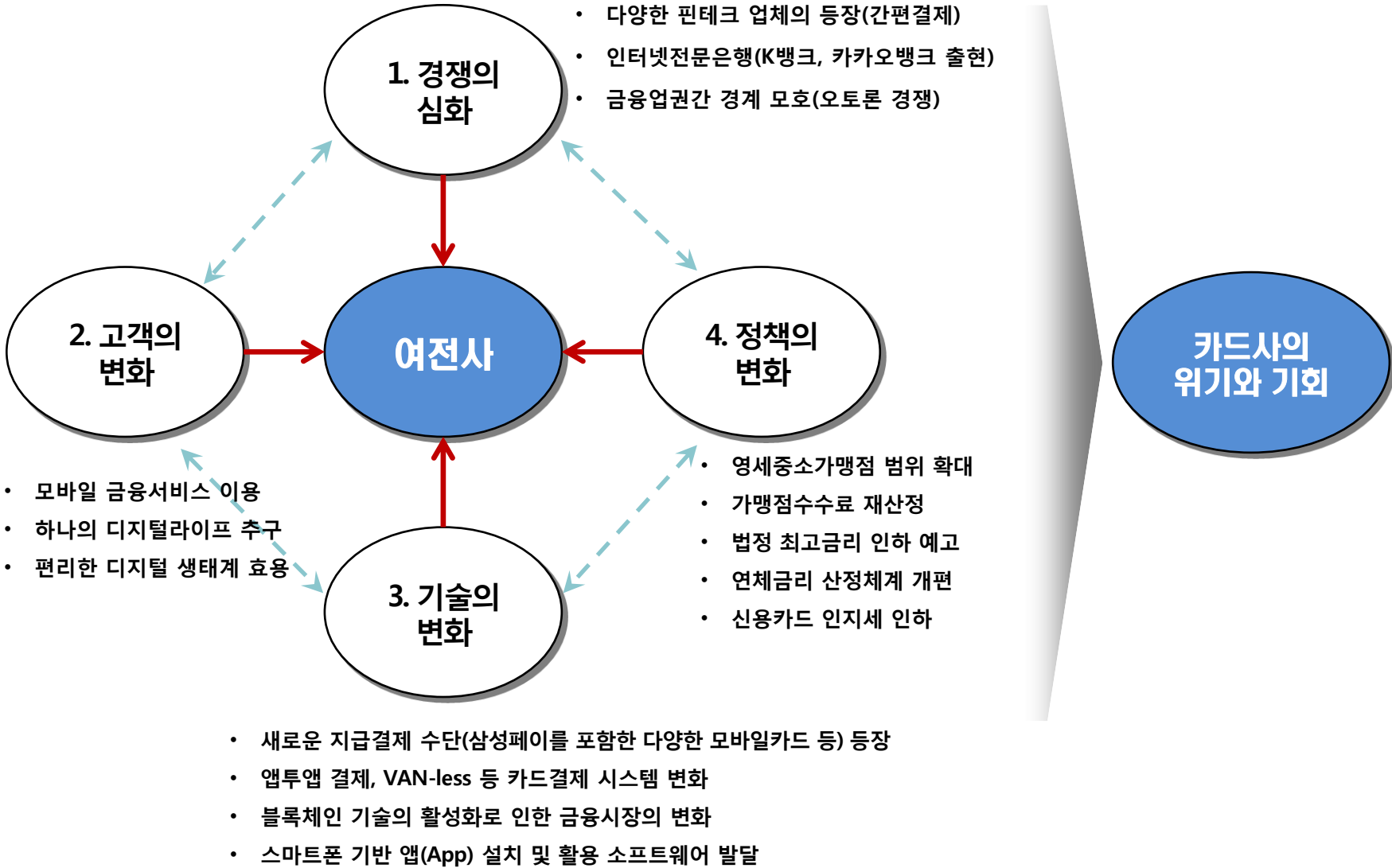
주 : 스프레드는 국고채 3년물 대비, 민평3사 평균, 17.12.13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합뉴스포맥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와 전망



주 : 18년 이후 미국 기준금리는 매년 0.25%씩 3회 인상한다고 가정 가정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Fed

카드사 영업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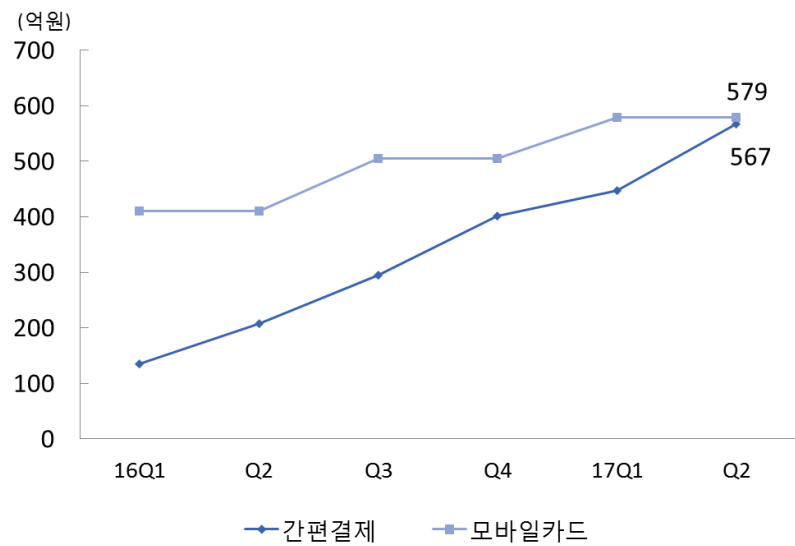


[간편결제] 지급결제 핀테크 활성화 불구, 단기 영향력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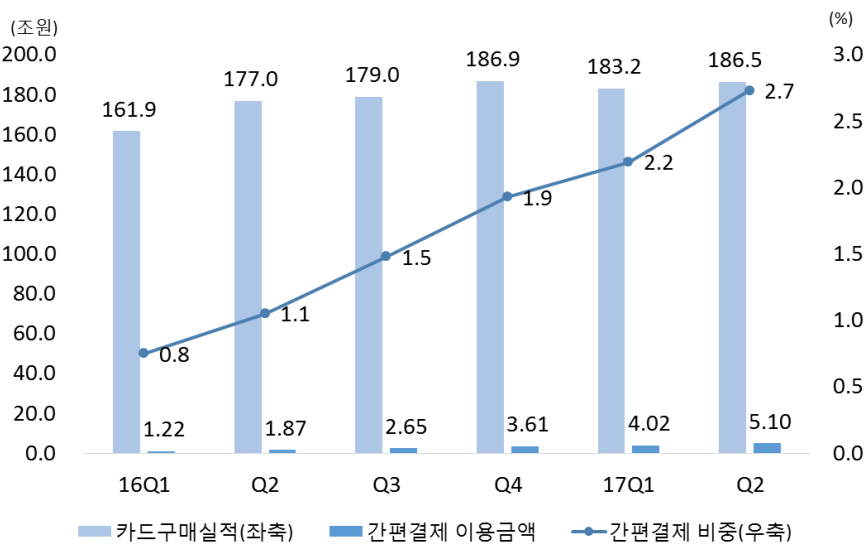
■ 카드사와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로 카드결제확대에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 주도권 경쟁 본격화

- 간편결제의 일평균 이용실적은 17년 2분기 현재 566.6억원으로 3분기 이후 카드사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규모를 넘어설 전망
- 단, 현재 카드구매실적 대비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은 2.7% 수준에 불과해 카드사와 결제매체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모바일카드 및 간편결제의 일평균 이용실적 추이



카드구매실적 대비 간편결제 이용실적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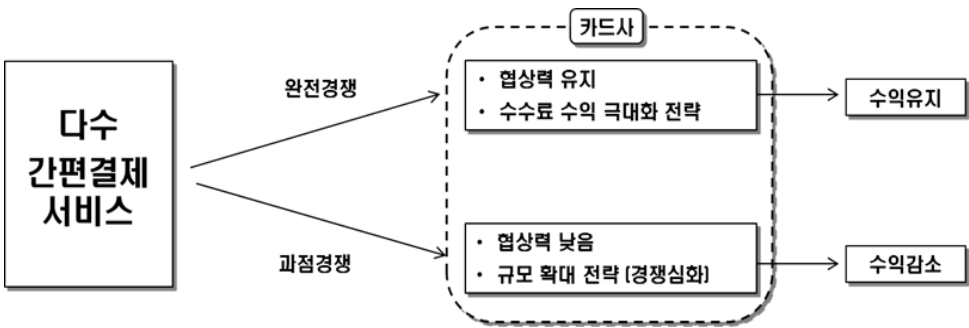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간편결제] 지급결제서비스간 경쟁과 수익성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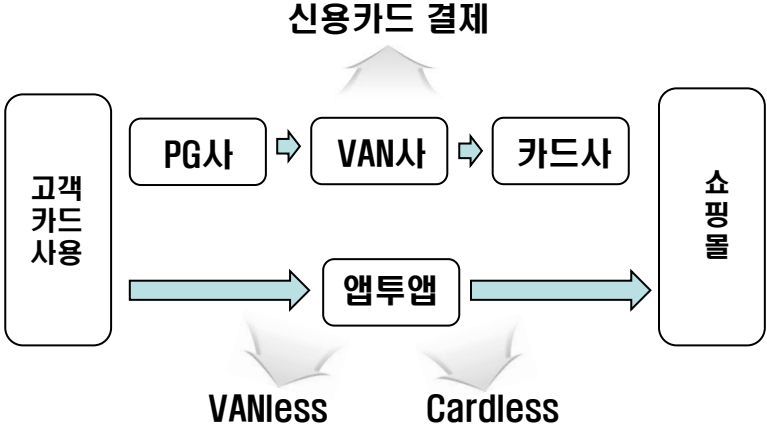
■ 지급결제서비스 경쟁구도 및 카드사의 신결제기술 도입여부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 발생

- 간편결제서비스 업체간 경쟁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독점시장에 가까워지면 카드사의 협상력 저하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 존재
- 다만, 카드사는 애플페이 및 폰투폰 등과 같은 신(新) 결제서비스를 타업권 보다 일찍 도입해 현재의 지급결제서비스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카드결제를 견고화 하면 경쟁력 강화 가능
- 하지만, 은행계좌와 직접 연계된 애플페이 결제서비스는 카드결제서비스 위협 요인

간편결제서비스 경쟁구도와 카드사 수익성



신용카드 결제 VS. 애플페이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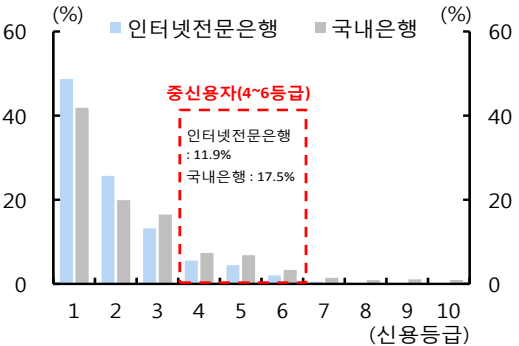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 단기적 영향 제한적, 다만 장기적 경쟁 심화

■ 금산분리, 자본금확충, 리스크관리 문제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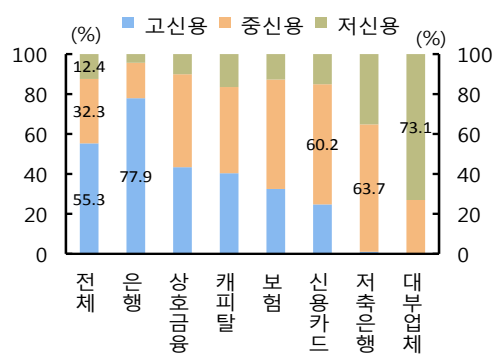
- [대출] 단기적으로 자본확충 어려움과 고신용대출 위주 영업으로 카드론 고객 범위에 있는 중신용자 대출까지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결제] 인터넷은행의 앱투앱 결제서비스는 초기 가맹점확대, 여전법 위반 소지, 카드사 네트워크 이용 등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촉발 가능

신용등급별 가계 신용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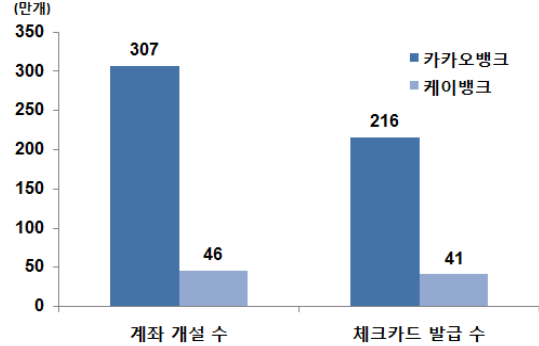
주: 17.8월말 잔액기준(국내은행 17.7월말 기준)
자료: 각 인터넷전문은행, NICE평가정보

업권별 가계 신용대출 비중



주: 17.2/4분기말 기준
자료:NICE평가정보, 한국은행(2017)

인터넷은행 계좌 및 카드발급수



주: 17.8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7)

[정책변화] 법정 최고금리 상한 인하 및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 법정 최고금리 상한 인하 및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은 카드대출 및 연체채권이자 관련 수익의 감소 요인

- 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중 적용 받는 구간의 금리대의 수익 감소가 예상
- 또한, 연체금리 산정체계가 개편돼 카드사에 적용되면 현재 6~9% 수준의 가산금리가 3~5%로 인하돼 연체채권 이자수익의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존재
 - 연체채권 가산금리 개편시 직접적으로 위험지표에 따른 수익의 감소와 함께 간접적으로 연체 발생 유인을 높여 관련 카드사의 대출 관련 대손비용 증가가 가능

법정 최고금리 상한 및 연체금리 산정체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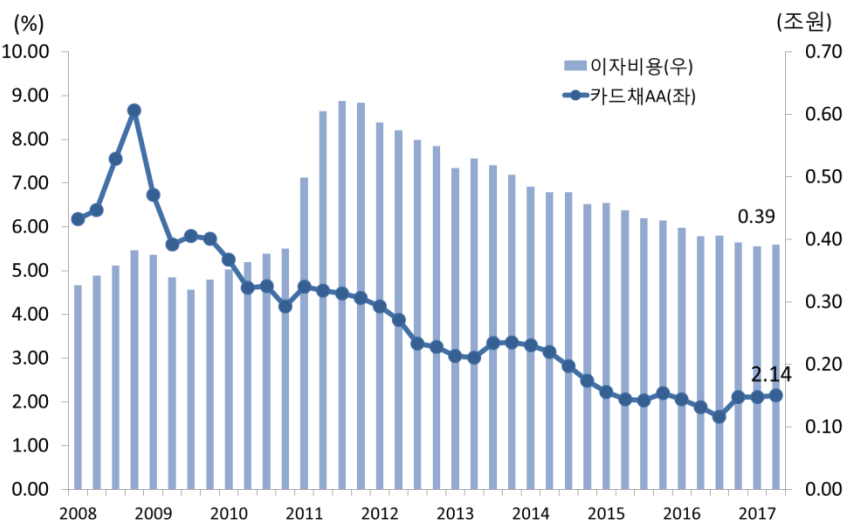
구분	내용
법정 최고금리 상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5, § 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18.2.8)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 마련(18.1Q 예정)•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 존재

[기준금리 인상]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 18년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카드채 발행금리 상승이 확실시 되며, 이와 함께 자금조달 비용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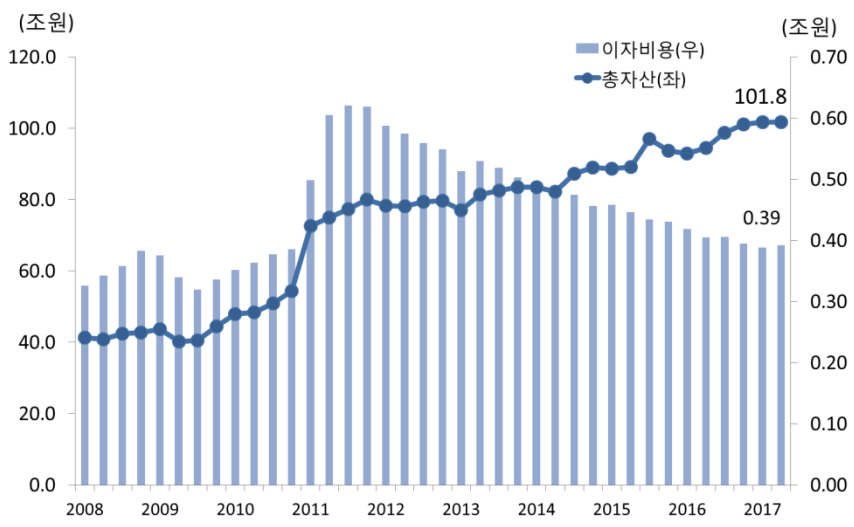
- 이자비용은 카드채 발행금리와 총자산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며, 18년도 3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조달비용이 상당폭 증가 가능성 존재
- 한편, 카드채 금리상승 및 카드대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비용의 증가로 연체율 증가와 함께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존재

카드채 금리와 이자비용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총자산과 이자비용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III. 경영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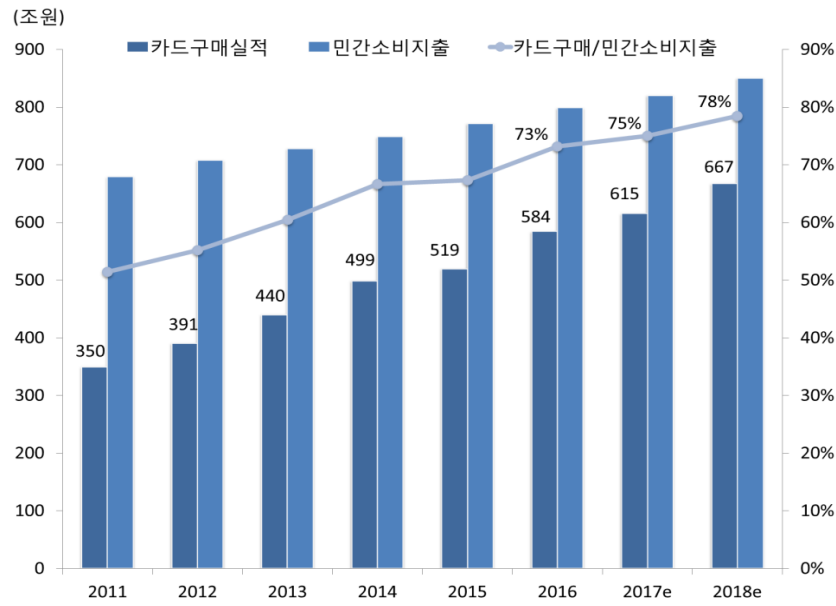
1. 성장성
2. 수익성
3. 자산건전성
4. 종합

카드 구매 및 대출 이용실적 지속 증가 전망

■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신용판매 및 신용수요 증가로 인해 카드구매실적 및 카드로
중심의 카드대출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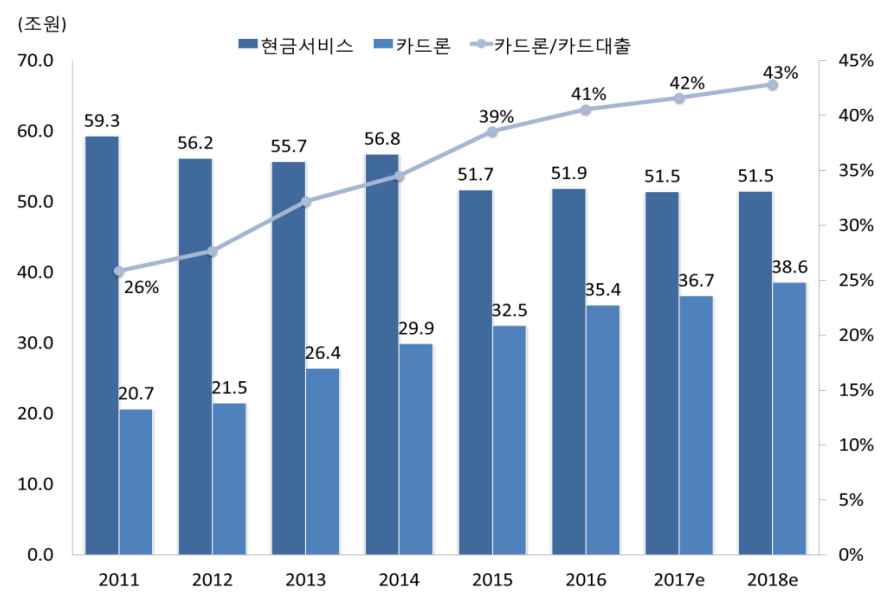
- 18년 카드구매(일시불+할부+체크)와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로) 이용실적은 전년대비 각각 8.4%와 2.2% (현금서비스: 0.1%, 카드로: 5.2%) 증가 전망
- 전체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로) 중 카드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까지 증가 전망

카드구매실적 추이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금융연구소

카드대출 이용실적 추이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금융연구소

18년 당기순이익 하락세 지속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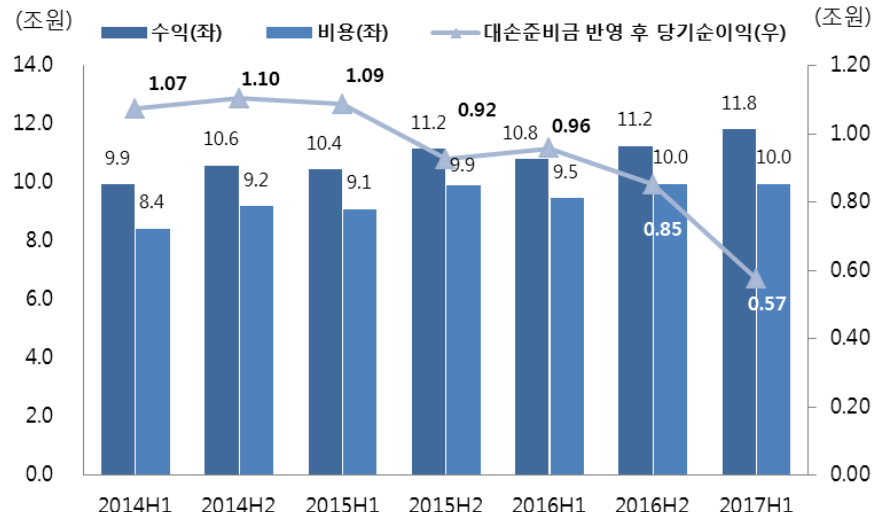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로 인해 17년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18년도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및 조달비용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당기순이익 감소폭 확대 가능성 존재

- 17년 3분기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약 3,500억원의 가맹점수수료 수익감소 추정, 올해 조달금리 상승 및 법정금리 최고금리 상한 인하도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전망
- 18년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 PG하위몰 수수료 및 우대수수료를 추가 인하, 가맹점수수료 환급 등의 시행 여부에 따라 전업계 카드사 당기순이익의 변동폭은 클 것으로 전망

수익성 영향 주요 제도변화 요인

적용시점	내용	수익영향
17.3Q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부정적
17.12	기준금리 인상(조달비용 상승)	부정적
18.2	법정금리상한 인하	부정적
미시행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부정적
미시행	우대수수료를 추가 인하	부정적
미시행	가맹점수수료 환급	부정적
미시행	인지세 인하	긍정적

카드사 수익 및 비용 추이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건전성은 문제없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점검 필요

-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 신설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로 여신건전성은 문제없지만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대손위험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카드새(카드업무 운영 은행 포함)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 신설
 - 17년 11월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18년도 2~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존재 하고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대손위험 증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

대손충당금 및 지급보증충당금 적립률

건전성분류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신용판매	카드대출 ^{주2)}	
					다중 카드론 ^{주3)}
정 상	0.85% 이상	1.00% 이상	1.1% 이상	2.5% 이상	3.25% 이상
中 적립률 차등 적용업종 ^{주1)}	0.90% 이상				
요 주 의	7.0% 이상	10.0% 이상	40.0% 이상	50.0% 이상	65.0% 이상
고 정	20.0% 이상	20.0% 이상	60.0% 이상	65.0% 이상	84.5% 이상
회수의문	50.0% 이상	55.0% 이상	75.0% 이상	75.0% 이상	97.5% 이상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100%

주 : 1) 적립률 차등적용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2) 카드론, 현금서비스, 구· 판매신용카드대금 등
3) 복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의 카드론

2018년 카드사 부문별 수익성 전망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수익성
신용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카드 이용실적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결제시장 확대◆ 국내 경기회복세로 인한 신용판매 증가◆ 카드사 VANless, 애플페이 결제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수수료를 추가 인하 요구◆ 국내 카드채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핀테크업체의 애플페이 결제 등 신(新) 지급결제기술 도입 및 확대 가능성	다소 부정적
카드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채 증가로 제2금융권 대출수요 증가◆ 소비활성화에 따른 신용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위험으로 인한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증가◆ 핀테크 업체 및 저축은행과의 중금리대출 시장의 경쟁심화◆ 법정최고금리 인하 및 가계부채 총량 규제	다소 부정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인지세 인하 실현 시 비용 감소◆ 할부·리스 부문에 대한 영업력 강화◆ 일부 해외진출 및 빅데이터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부리스 자산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투자비용 대비 수익확보 어려움	긍정적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판매 부문의 카드결제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맹점수수료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수익성 확대의 어려움 존재◆ 카드대출 부문은 카드론 중심으로 대출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중금리대출시장의 경쟁심화와 조달비용 등의 상승으로 수익성 확대까지는 다소 부정적◆ 부수업무, 할부·리스 관련 비즈니스 확대는 지속될 것, 단 수익비중은 낮음		다소 부정적

주: 수익성 전망은 부정적 -> 다소 부정적 -> 중립적 -> 다소 긍정적 -> 긍정적 순임